



‘윤석열 탄핵 촉구 사발식’ 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초·광역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사발식을 갖고 있다. /김애리 기자

## “5·17-12·3 ‘쌍둥이 포고령’...尹 ‘5월정신 계승’ 새빨간 거짓”

▶ 관련기사 2·3·4·5·6·12면

대한민국 ‘민주화의 심장’ 광주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광주지역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9일 다시 집결해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5개 자치구, 광주지역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단체, 5·18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대표 2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연

석회의’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포고령은 1980년 5·17 계엄포고령을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이라며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이 12·3 계엄을 통해 전두환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다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3 포고령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 활동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험적”이라며 “계엄을 주도한 방점사(국군방첩사령부)에 5·18의 원흉인 전두환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5·18의 아

● ‘민주화 심장’ 광주서 탄핵·체포 요구 ‘들불’ 확산

단체장·종교계·오월단체·학계, 5·18광장서 연석회의 지방의원들 “내란 주범尹 즉각 탄핵” 8명 사발 투쟁 국민의힘 동참 촉구 “韓·韓, 위험적 기만행위” 맹비난

품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말은 새빨간 거짓임이 증명됐다”며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을 해제시킨 데 이어,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투표를 거부한 데 대해 “내란 동조자의 길로 가고

있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전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발표를 통해 밝힌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위헌적 국민주권 기만행위”라고 규정한 뒤 “위헌적인 행동과 투표 거부는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1980년 5월

을 함께 이겨냈듯 2024년 계엄이 선포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들은 “내일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날”이라며 “한 작가는 광주를 인간의 극단적 잔혹성과 존엄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보듬명사라고 했다. 1980년 5월 광주가 광주시에 국한된 이름이었다면, 2024년 12월 광주’는 계엄령이 선포된 대한민국의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투표에 참여해 2024년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은 이날 5·18 민주광장에서 “12·3 내란 주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며 사발 투쟁이 나왔다.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겁박한 내란 주범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피와 땀과 목숨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윤석열의 정신 나간 행동으로 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며 “국민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 탄핵’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주성학 기자

## 민주, ‘윤석열 내란 특검법’ 속전속결

국회 추천 특검 배제 법안 발의...김건희 특검법도 김건희 특검 12일·尹내란 특검은 14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

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를 별도로 발의했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정국 향후 일정	예상 예정 일정 기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비상계엄 해제	
아6당,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민주당,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6일 민주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정결과 부결·폐기	
8일 국민의힘, 윤 대통령 조기 퇴진방안안 마련 시작	
9일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주도 법안소위 전체회의 열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심사	
검찰 비상계엄 특수법,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전담(10일 오전 이내 청구 가능)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상정	
11일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안 재발의	
12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보고, 김여사 특검법 표결	
14일 탄핵안 표결, 내란 특검법 표결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

## 한강, 오늘 노벨문학상 받는다

한국시간 자정부터 스웨덴서 시상식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10일 자정(한국시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 관련기사 5면

2024 노벨상 시상식은 10일(현지시간) 오후 4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렌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10일 자정부터다.

콘서트홀에는 시상식의 상징인 ‘블루 카펫’이 바다에 깔린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입장하면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연주되고 이어 수상자들이 등장한다. 한강이 어떤 의상을 입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상식에선 남성은 연마복, 여성은 이브닝드레스를 입어야 하며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는 것도 가능하다.

시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하는 평화상을 제외하고 다섯 부문에 대해 이뤄지며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순서로 진행된다.

각 부문 수상자 선정 기관의 대표가 짧은 연설 후 수상자를 호명한 뒤 스웨덴 국왕이 직접 수상자에게 메달과 노벨상 증서(diploma)를 건넨다.

올해 문학상 시상 연설은 스웨덴 한림원의 종신위원 1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수상자 선정에 참여한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마틴이 담당한다. 수상자들이 받는 노벨상 증서에는 매년 다른 삽화가 들어간다. 특히 문학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증서는 가족으로 된 왕피지로 제작돼 특별함을 더한다. /최명진 기자·연합뉴스

###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전광판 사진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